

# “고용·수출 지표 5% 높일 것”... 中企 경제활력 회복 나서

##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중소기업, 물품 구입·기부하며 출장식 중기중앙회 등 中企 유관단체 동참

중소기업계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에 적극 나서면서다.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사고 기부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별빛남문시장에서 김기문 회장을 포함한 캠페인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캠페인의 출발을 알렸다.

캠페인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내수·고용·수출을 위해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을 시작했다. (왼쪽 4번째부터)이영 중기부 장관, 금천장애인복지관 박은정 관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금천구 별빛남문시장에서 물품 구매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가 두루 동참했다.

캠페인은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투자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뿐만 아니라 고용과 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가

지 이상의 지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대기업 동참 유도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수진작 분야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구매목표 500억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5월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발맞춰 온

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구매 한 상품권은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한다.

고용활력 분야에선 ▲청년고용 활성화 캠페인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

정이다.

수출증대 분야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등이다. 또 미국·중동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상담회, 신산업·신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일본 중소기업과의 경제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더 어려운 약자를 돕겠다는 상생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소기업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이 경제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확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온 국민 동행 축제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수출기업, 내년까지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없어

## 중소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수출액 273억달러... 전년비 7.9%↓ 금리우대·보증 지원 자금 한도 확대 내수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수출기업들은 내년까지 정책자금 지원횟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일괄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의 3분의 2는 내수기업에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정부서

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대책에 이어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

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수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유예(30만 달러 이상)한다. 정책자금 용자제한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다. 금리우대(이자보전 3%p 인하)도 일괄 적용한다. 수출보증 지원시에도 소요 자금 한도를 110%까지 확대 적용한다.

일정규모 이상 수출기업(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지

원을 연계 받는다. 간접수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123억원·250개사)의 3분의 2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인천공항에 짓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도 2025년도에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중동 등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과 현지진출 역시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 중 리야드에 글로벌

별비즈니스센터를 새로 연다.

수출 현장도 면밀히 챙긴다.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추가 공급이 추진되고 초격차 분야에 55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해외인증 전담대응반 기능이 확대되고 지원절차 간소화 등 인증 부담은 완화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수출 활성화 TF(테스크포스)'도 가동한다.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약 40%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2027년까지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네이버클라우드 AI, 삼성전자와 만나다

“반도체칩 통해 전세계로 공급 기대”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 오픈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삼성전자와 AI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AI모델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칩을 통해 전세계로 공급한다면 매우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원 대표는 사단법인 도전과나눔이 17일 오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제53회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한국형 초거대 AI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다'란 주제의 강연에서 “AI는 과거의 소프트웨어(SW)와 달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GPU도 비싸다. AI 성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

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AI반도체를 같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춘천에 이어 올해 하반기엔 세종시에 축구장 41배 크기의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이 로봇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초대규모 AI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어보다 한국의 사회와 문화,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AI)모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정된 토큰 사전의 크기로 메인 언어(영어)가 아니면 품질도, 속도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챗gpt로 세상을 바꾸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 마이크로소프트(MS) 솔루션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도전과나눔

업무 이진복 상무는 “생성형AI의 핵심은 ‘시간’”이라면서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지나 생성형AI로 넘어오면서(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나머지 9시간 50분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초거대 AI기반의 모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남은)‘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BC카드와 동행축제서 할인 이벤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BC카드와 함께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16일 비씨카드와 '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소진공과 비씨카드는 그동안 내수·소비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5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상호협력·연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3년 동행축제(5·9·12월) 관련 흥

보 협력 ▲소비자 이벤트를 통한 고객 관심도·혜택 확대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행축제 기간에는 에코백 협조 뿐만 아니라 비씨카드 마이태그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BC카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최대 10% 할인(최대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백년가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 분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유엔 총장 “G7서밋,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불가 확인해야” /사진 뉴시스  
▲ 애플 근무 中엔지니어, 자율주행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

▲ 일본, 1분기 경제성장률 0.4% 증가... 3분기만에 플러스 전환  
▲ 경제위기 레바논, 이라크 석유수입 50% 늘려 발전수요 충족



▲ 미얀마·방글라데시, 초강력 사이클론 모카 상륙 큰 피해 /사진 뉴시스  
▲ 中 군함 2척 서태평양서 미사일 발사 실패